



박서보 화백 '묘법...'展 -인사동 노화랑

# 나를 지운다 나를 비운다



최병소 작가 개인전 -삼청동 아라리오갤러리

## 한국 현대미술 원로 2인의 '무념무상'

작품 자체가 큰 울림을 주고 삶에 대한 묵직한 가르침을 주는 한국 현대미술 원로들의 작품전이 새봄을 맞아 열린다. 한국 현대미술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박서보(왼쪽·84) 화백의 '묘법: 에스키스-드로잉전'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 노화랑에서 열린다. 박 화백이 평생 천착해 온 대표작이자 단색화의 주요 축을 이루는 작품 '묘법' (écriture) 시리즈의 진정한 속살을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전시다. 삼청동 아라리오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는 최병소(오른쪽·72) 작가는 신문지를 볼펜으로 반복적으로 긁는 수행적인 작업으로 재료의 물성을 바꾸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사한다. 마치 수행하듯이 그림으로써 비우고 지움으로써 비우는 무념무상의 반복적인 행위들이 시간과 함께 쌓여 만들어진 작품들을 통해 이들은 말한다. 예술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박 화백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선보여 온 대표작 '묘법' 시리즈로 국내외에 한국 단색화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작가다. 그의 작업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57년 '회화 No.1'을 출발로 1960년대 중후반에 이르는 앵포르멜과 관련된 '원형질 시리즈'의 추상표현적인 작업, 1967년 '묘법 No.1-67'로 시작돼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는 '전기 묘법'과 한지 묘법, 1997년부터 최근까지 무채색뿐 아니라 색채를 사용하는 후기 묘법이 그것이다. 초기의 묘법은 화면을 가로로 이등분하고 그 직사각형 안에서 자유롭지만 엄숙하게 사선으로 그어 내린 연필 선의 움직임이 주를 이룬다. 이후 그는 캔버스 물감으로 덮은 뒤 물감이 마르기 전에 연필로 선을 긋고, 그것을 물감으로 지우고 다시 그 위에 선을 긋는 행위를 반복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지우고 비우는 행위의 반복 자체가 남긴 결과물이 부조와 같은 느낌을 주는 마티에르가 그의 작품이다. 전시 개막에 앞서 만난 박 화백은 '묘법'이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7년이었어요.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비워야 한다는 건 깨달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리 책을 읽어도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세상 난 아들이 자기 형이 글씨 쓰는 것을 따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연필을 마구 그어서 지워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구나!' 여기서 방법론을 찾았지요. 체념에 이르는 방법은 지우는 거였습니다."

### ● 에스키스·드로잉 중심 35점의 '후기 묘법' 선택

그렇게 시작된 비움의 미학은 표현 방식과 재료만 달라졌을 뿐 그의 삶과 예술을 관통한다. 이번 전시는 후기 묘법의 출발 시기와 맞물려 시작된 에스키스와 드로잉을 중심으로 꾸며진다. 흔히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하지만 마치 건축도면처럼 mm 단위로 표시한 작품의 에스키스는 소문난 완벽주의자인 박 화백이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하게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의 드로잉은 스케치 단계만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작업이자 완성된 작품과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번 전시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작업한 35점의 에스키스와 드로잉이 소개된다. 추상 회화지만 아파트 8층에서 바라본 한강 다리와 제주도 해변가에서 자동차를 타고 본 수평선 등의 풍경을 재해석한 것이다. 주관적으로 느낀 예술적 영감은 에스키스-드로잉으로 구체화되고 그것이 재료와 행위를 만나 작품이 된다. 후기 묘법에서는 엄격해진 구도 속에 작품에 트임이 등장한다.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요. 저는 말입니다. 그건 정신이 코를 박고 숨쉬는 창이라고요."

### ● "그림에서 비운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지"

국내외에서 단색화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것에 무척 고무된 박 화백은 "서양의 모노크롬은 다색주의에 대한 안티로 나타난 것이지만 단색화는 모든 것을 비워내고 자연을 살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단색화는 억제돼 몸부림치는 자기 절제의 결과이기 때문에 색이 없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어서 정신적 깊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상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담아 놓았다가 돌려서 때는 빠고 걸러내 정제된 작품을 보여주는 게 마치 드림세탁기 같다"고 자신의 작업 방식을 설명한다. "그림에서 비운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지"라고 말하는 그는 2009년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진 뒤 비움의 인생관이 더 확고해졌다고 했다.

"이제 저는 탐욕이나 집스러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려요. 어떤 자극적인 얘기에든 흥분하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살아야 다 해 봤지만 이제 와 생각해 보면 부질없어요" 전시는 11~31일. (02) 732-3558

신문을 지운다. 나를 지운다  
최병소는 신문을 볼펜으로 지우는 고유한 방법론을 구사하며 정신성과 행위성이 뚜렷이 각인된 작품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작가다. 활자도, 여백도 보이지 않는 작품은 원재료가 신문이었다고 하지만 더이상 신문이 아니다. 차라리 얇은 펄프지에 잉크를 먹인 것 같다. 볼펜의 잉크로 무수히 그어진 선들이 면을 이루면서 야릇한 광택을 낸다. 도대체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걸렸을까. 이걸 다 지우는 데 볼펜을 몇 자루나 썼을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업을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작가는 멧쩍은 듯 답한다.

"물라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몸을 움직여 지워 나가다 보면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 ● 신문을 볼펜으로 지워낸 작품 '전쟁의 상흔' 담아

작가의 손을 들여다봤다. 볼펜을 쥐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마디 자리에 딱딱한 못이 박혔다.

그의 작업은 전쟁의 상흔을 담고 있다. 1943년 대구에서 태어난 작가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초토화되고 물자가 부족하던 때였기에 교과서는 유네스코의 인쇄 기계 지원을 받아 신문용지에 인쇄해 배포했다. 어린 최병소는 신문지 교과서를 접어 꼬깃꼬깃해지고 나날날달해질 때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 집한 자국과 해지고 찢긴 모습은 1970년대 신문 작업으로 되살아났다. 서라벌예대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젊은 작가들과 전위미술그룹인 '35/128' (대구의 위도와 경도를 의미하는 숫자)에 속해 뭔가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찾고 있을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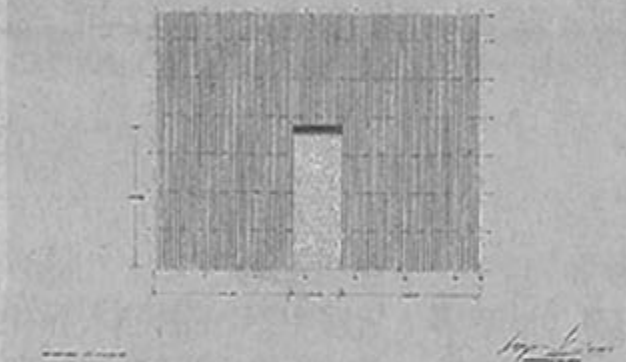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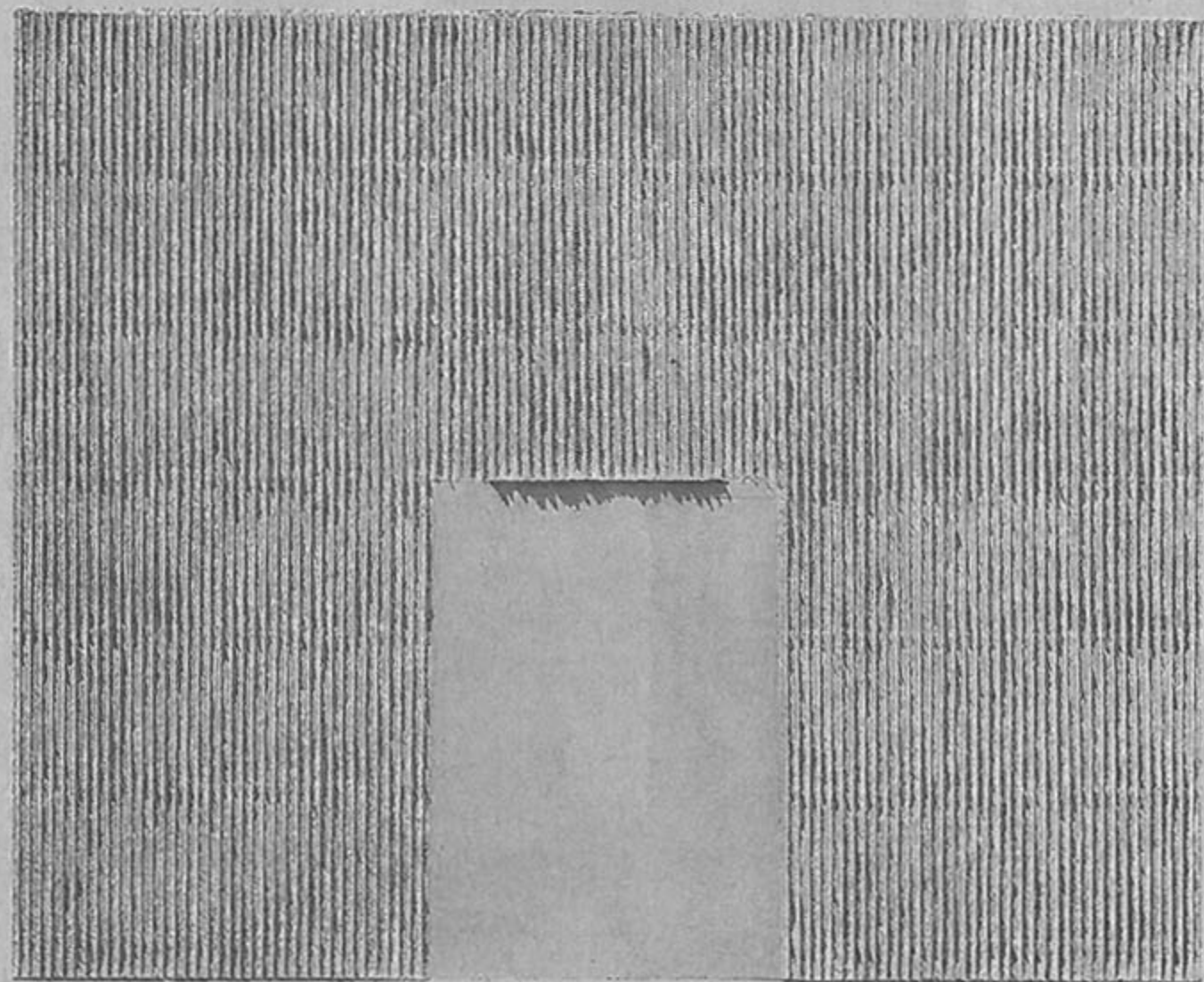
1975년 노점의 할머니에게서 우연히 구입한 엘피판 천수 다라니경을 들으면서 눈앞에 놓였던 볼펜을 들고 신문을 무심히 지우기 시작했던 게 그의 신문 작업이다. 당시 작가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군부독재 시절 사회 현실에 저항한 게 아니냐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작가는 "관객들은 그리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간지가 매일 쌓이고 책상 위에는 필기구가 있으니 그야말로 그냥 칠한 것"이라고 진솔하게 설명했다.

### ● "지루함을 몸으로 견뎌내는 것이 나의 작업"

시간과 노동이 집약된 작업을 한 지 어느덧 40년이다. 신문을 접어 그리드를 만든 후 신문지 위에 볼펜으로 선을 긋고 다시 연필로 지우는 반복적인 행위는 고도의 인내를 요구한다.

"사람들은 날마다 반복되는 작업이 지루하지 않냐고 묻곤 하는데 그 지루함을 몸으로 견뎌내는 것이 나의 작업이다. 온종일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하염없이 지운다. 신문을 지우는 행위는 곧 나를 지우는 것이다."

그래도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 1970년대에는 신문지의 한 면을 지웠고, 80년대에 약간의 휴지기를 거쳐 다시 지우기를 시작해 1990년대 들어선 신문지 양면을 지웠다. 2000년대에는 절단된 신문지가 아니라 원하는 길이를 무한히 쓸 수 있는 신문용지를 지우기에 이른다. 아라리오갤러리에서는 1973년 독서신문에 한 작업과 1978년 대구에서 제작된 비디오 영상, 최근의 주식시세표 작업과 15m, 7m짜리 대형 설치 작업 등 20여점이 선을 보이고 있다. 영상물은 1978년 김영진, 고(故) 박현기, 이강소 등과 함께 사진작가 권중인 소유의 대구 동성로 K스튜디오에 모여 촬영한 것으로 흰색 분필로 선을 그어 가며 칠판의 전면을 지우는 행위를 통해 작가의 몸과 작품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전시는 4월 26일까지.



◆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마음을 비워 가는 수행의 결과물이 작품이라는 박서보 화백. 그의 작품 '묘법'과 이를 위해 제작한 에스키스-드로잉. 노화랑 제공  
◆ 숯처럼 검게 탄 마음이 이런 모습일까. 볼펜과 연필로 모두 다 지워진 신문.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